

# 사회적 대화 재개



**한 용 수**  
의  
돌직구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고용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6일 재개된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선언 이후 10차례 각 부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등을 놓고 조율해 왔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건 이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 문제가 산적인 상황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 관계를 강화해 결국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향후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실제로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 선정부터 첨예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시간과 계속

고용 또는 정년연장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반대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사안을 주제로 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30년 가까이 100여건의 합의와 50여 건의 권고·건의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과건근로 도입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금 동결·고용 유지 등 그 성과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노총이 탈퇴를 선언하거나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 불참을 선언하는 등 파행이 더 많았다. 애초부터 딱 떨어지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를 논의하다보니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 여기에 낮은 노조조직률 등 대표성 문제 등이 거론되며 사회적 대화 무용론도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쟁점에 대해 노사양측이 주장을 펴고, 공존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 꾸썬히 한 걸음씩 전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청년과 중장년 이후 계속 고용, 산업전환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인 위기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각자 이해타산을 하기에 앞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먼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양극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글로벌 위기에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간 IMF 등 몇 차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서로 갈라진 민심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hys@metroseoul.co.kr

## 외부 영입 vs 내부 발굴의 딜레마



**기지 수첩**  
박 태 흥  
(정치경제부)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면서 내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흔히 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인재 충원을 하는 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내부에서 당직자나 보좌진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외부 영입 인사를 늘리면 내부 발굴 인재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내부 인재를 발굴하면 외부 영입 인재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외부인사 영입은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충실한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부 인사가 갖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정당 안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고,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를 국회 안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다만, 외부영입 인사는 지역구에 기반이 확고하지 않거나 비례대표의 경우 당의 강성 지지층을 쫓는 정치인이 될 유인이 많다. 거대당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타협과 가능성의 정치를 펼치기보다는 지지층에 기대는 팬덤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외부인사는 현실 정치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당의 생리와 국회의 구조에 빠져있는 내부 영입인사와는 달리, 외부 영입인사는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에 소홀하고 중앙정치 이슈를 쫓기에 바쁘다는 이야기다. 내부 인사들은 숙련된 '정치 기술자'들이다. 당직자나 보좌진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과 예산 업무에 빠삭하다. 당의 입장에서 내부 인재를 많이 등용하면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재를 육성해 국회 의원까지 당선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금도 소위 일 잘하는 '에이스'

라고 불린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맡아 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내부 인사들은 당이 그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어찌보면 그들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 심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정치권의 '플레이어'였다. 당에서 오래 활동하다보니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입장에서 비슷하다. 내부 인재 발굴이 정말 의정활동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특정 내부 인사의 발굴이 당의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300개의 헌법기관이며 의원 1명의 의정활동이 대한민국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외부인사를 수혈하는 것보다 당의 비전과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내·외부 가리지 않고 충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pth285@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2월 6일 (금 12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48년생** 덕을 배운 결과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60년생** 피로를 잊는 즐거운 일이 생긴다. **72년생** 첫눈에 반하게 되는 상대를 만난다. **84년생** 사랑이 현실적으로 잡지는 않는다.

**37년생**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 **49년생** 지인과 즐거운 술자리가 마련된다. **61년생** 옷차림의 청춘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73년생** 재기할 기회가 오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85년생** 부모님이 안쓰러운 마음.

**38년생** 오늘은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50년생** 자식 사업이 극복할 기회가 오고 있다. **62년생** 열심히 일하는 밑에 사람을 칭찬해 주라. **74년생**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86년생** 투자하려는 배우자의 말을 들어라.

**39년생** 어려울수록 애트사람을 많이 격려해 줘라. **51년생** 운세가 상승하고 있으니 금전 문제가 해결되는 하루다. **63년생**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이 관건이다. **75년생** 말 많은 일에 이득 될 것이 없다. **87년생**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타보라.

**40년생** 과거에 심어놓은 친절에 덕을 볼 때가 되었다. **52년생** 월성부를 나누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였으니 인원선발을 잘하라. **64년생**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76년생** 외화내빈 한 상대를 파악하라. **88년생** 백세시대의 주인공.

**41년생** 성공을 위해 자식의 능력을 이성적으로 파악해보라. **53년생** 무심코 상대를 모욕하지 않도록, **65년생** 소신껏 자신의 의지대로 해라. **77년생** 연을 날려서 연이 높이 오르는 하루와 같다. **89년생** 후시라도 병원 가서 질병을 찾아보라.

**42년생** 속 빈 강정처럼 허세를 부리면 금방 탈이 난다. **54년생**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을 추진하라. **66년생** 선배의 조언을 성실히 받아들여라. **78년생** 약속은 실천이 따라야 한다. **90년생** 성공도 가족력이라는 데.

**43년생** 매대는 정신을 바로 치려야 손실이 없다. **55년생** 서두르면 실패의 원인이 된다. **67년생** 계획대로 단계 밟아가며 일하라. **79년생** 어려움에 대해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91년생** 살이 찌니 식습관을 바꾸라.

**44년생** 집수리는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손실이 없다. **56년생** 남의 인정에 참견하지 않으면 구설수가 없다. **68년생** 공인된 책임자 할 일을 만들게 된다. **80년생** 공부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도록 하라. **92년생** 저금의 감사함을 느낀다.

**45년생** 의욕이 없어 만사가 귀찮다. **57년생** 상대가 봐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 곤란하다. **69년생**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면 언젠가는 이뤄질 수 있다. **81년생** 누구나 크고 작은 결점이 있다. **93년생** 멍하게 자내는 지루한 하루가 된다.

**46년생** 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불화가 있다. **58년생**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70년생**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82년생** 폭식 음주는 금물. **94년생** 지나친 자만심을 오늘 하루는 모두 내려놓고 휴식하자.

**47년생**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넘치는 하루다. **59년생** 조금이지만,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71년생**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 **83년생**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 **95년생** 옛말에 될 성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했다.

## 김상회의四季

### 끝까지 좋기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약성경 욥기의 한 구절로 기억된다. 성경의 이 구절은 필자도 좋아하는 구절이다. 한자성어에서는 대기만성(大器晩成)으로 통한다고 보고 용두사미의 반대말 격이다. 팔자에서는 초년복 좋은 것이 말년복 좋은 것보다 못하다 라고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소년 급제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말까지 있는 것이다. 갑자기 주목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의 흠결을 일부러 찾거나 일반인이면 문혔을 과오도 커다랗게 조명을 받는다. 유명세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운기의 구조가 그러하다.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지수회풍의 기운이 서로 돌고 돌면서 작용을 주고 받는 것이라서 처음에 좋다고 끝까지 좋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마음에도 적용되어 좋아도 좋다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겸손함과 하심을 가르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하듯 좋고 기뻐하는 일에는 시샘이 따를 공산이 큰 것이어서 기쁜 일일수록 몸을 낮추는 것은 지혜이다. 오히려 더욱더 그러하다. 용의 기운 자체가 승천을 갈구한다. 항상 위만 쳐다보고 있다. 용은 물을 만나면 더욱 힘을 받으나 갑진년의 용은 천간의 갑목(甲木)이 진토(辰土)를 극하는 형상이다. 청룡의 기세가 대단하지마는 용을 견제하는 기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용이 승천을 이룰 때까지는 기운을 잘 모아서 한순간에 거침없이 올라야 한다. 용이 되지 못하면 한낱 이무기로 끝날 것이다. 용이 될 것인가, 이무기가 될 것인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하고 개개인도 마찬가지다. 때를 알고 기다리는 자가 진짜 승천하는 용이 될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하심이 몸과 마음에 진실로 베인다면 분명 성취의 과실을 얻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367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 2017년3월09일 제1471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5길 38-3호 3층 메트로  
http://www.argo9.com

QR 코드와 할인도서

|   |   |   |   |   |   |   |   |   |
|---|---|---|---|---|---|---|---|---|
| 8 |   | 4 |   |   | 3 |   |   |   |
|   | 7 | 1 |   | 2 | 7 |   |   |   |
|   | 8 | 2 |   | 7 |   |   |   | 1 |
|   |   |   | 2 | 1 |   |   |   |   |
| 3 |   |   |   | 4 | 2 | 5 |   |   |
|   |   | 6 | 9 |   |   | 5 | 7 |   |
|   |   | 7 | 1 |   |   |   |   | 9 |
| 2 |   |   |   | 5 |   |   |   |   |

|   |   |   |   |   |   |   |   |   |
|---|---|---|---|---|---|---|---|---|
| 9 | 7 |   | 6 |   |   | 3 |   | 5 |
|   |   |   | 4 |   |   |   |   |   |
|   |   | 3 |   |   |   | 1 | 9 | 6 |
|   |   | 9 | 3 | 4 |   |   |   | 7 |
|   |   |   |   |   |   |   |   |   |
| 5 |   |   |   | 9 | 6 | 8 |   |   |
| 7 | 9 | 8 |   |   |   | 4 |   |   |
|   |   |   |   |   |   |   | 4 |   |
| 6 | 4 |   |   |   | 7 |   | 1 | 3 |

|   |   |   |   |   |   |   |   |   |
|---|---|---|---|---|---|---|---|---|
| 8 | 7 | 1 | 9 | 2 | 8 | 6 | 7 | 9 |
| 6 | 9 | 8 | 7 | 2 | 1 | 2 | 8 | 9 |
| 2 | 2 | 9 | 8 | 6 | 9 | 7 | 1 | 1 |
| 2 | 9 | 2 | 9 | 7 | 8 | 6 | 1 | 8 |
| 9 | 8 | 8 | 1 | 6 | 2 | 7 | 9 | 2 |
| 1 | 6 | 7 | 6 | 2 | 9 | 2 | 8 | 9 |
| 9 | 2 | 9 | 6 | 8 | 8 | 1 | 2 | 7 |
| 7 | 1 | 2 | 9 | 9 | 6 | 8 | 6 | 8 |
| 8 | 8 | 6 | 2 | 1 | 7 | 9 | 9 | 2 |

|   |   |   |   |   |   |   |   |   |
|---|---|---|---|---|---|---|---|---|
| 8 | 1 | 9 | 2 | 8 | 6 | 7 | 2 | 9 |
| 6 | 8 | 2 | 7 | 9 | 2 | 9 | 1 | 8 |
| 2 | 9 | 7 | 6 | 9 | 1 | 8 | 6 | 2 |
| 7 | 8 | 9 | 6 | 1 | 2 | 1 | 8 | 9 |
| 1 | 6 | 6 | 9 | 2 | 8 | 1 | 9 | 7 |
| 2 | 9 | 9 | 1 | 7 | 6 | 8 | 2 | 2 |
| 9 | 6 | 1 | 2 | 2 | 9 | 6 | 7 | 8 |
| 8 | 2 | 2 | 6 | 8 | 7 | 9 | 9 | 1 |
| 9 | 7 | 8 | 8 | 1 | 9 | 2 | 2 | 6 |